

2005년도 중소기업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I. 조사결과 요약

1. 개 황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문제가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과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조사대상 업체의 3.6%만이 과단위 이상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1명만 있는 업체가 80.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담당자가 없는 업체도 4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체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80.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환경과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이 환경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폐기물(30.6%)과 대기(27.2%)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 중 68.6%의 업체가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업체 중 납부하고 있는 부과금 및 부담금의 종류로는 대기

배출부과금(39.6%)과 폐기물부담금(38.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 (34.0%)하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완화해야 한다.” (27.0%)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 및 자금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시 39.9%의 업체가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준수에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환경분야 투자와 관련하여 2004년도 투자비용이 있는 업체는 42.4%로서 평균 투자비용은 39,887천원이며, 2005년도에 투자계획이 있는 업체는 44.7%로서 이들 업체의 평균 투자계획 비용은 38,87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곤란” (36.1%)과 “정부의 지원책 부족” (21.9%)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업체 중 16.5%가 전년도에 환경 관련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반분야로는 대기(35.9%) 및 수질(25.6%) 분야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처벌내용으로는 53.8%의 업체가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관련하여 총 474개 업체 중 74.3%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도·단속기관의 점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점검을 받은 업체는 평균적으로 연간 3.5회의 점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점검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계기관의 중복 지도·단속”(35.7%) 및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30.9%)을 들고 있다.

국제 환경협약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CO₂ 등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19.6%의 업체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 또는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하여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된 에너지사용에 대해서도 16.9%의 업체만이 에너지사용 저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환경과 연계된 무역규제의 진행추이에 따라 환경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아직 수용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관련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들은 1순위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40.8%)을 꼽았고, 2순위로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의무 과다”(26.5%)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정부의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애로 실태

□ 환경관리 조직현황 및 인적구성

- 환경관리 담당 조직(부서)설치 여부에 대하여 3.6%만이 과단위 이상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만 있다는 응답이 53.0%인 반면 담당자가 없다는 응답도 4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도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써 환경문제가 기업경영에 있어 점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은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구 분	과단위 이상	담당자만 있음	담당자 없음	계
업 체 수	17	251	206	474
구성비 (’04)	3.6 (3.0)	53.0 (54.0)	43.4 (43.0)	100.0 (100.0)

- 한편,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 전체인 원수에 대하여는 1명만 있다는 업체가 80.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2명 10.4%, 3~4명 7.1%, 5명 이상 1.9%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 분	1명	2명	3~4명	5명 이상	계
업 체 수	216	28	19	5	268
구성비 (’04)	80.6 (75.3)	10.4 (19.8)	7.1 (3.5)	1.9 (1.4)	100.0 (100.0)

- 또한, 환경관련 자격소지자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담당자가 있는 268개 업체 중 67.9%가 환경관련 자격(기사, 기능사)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관련 자격자가 있다고 응답한 86개 업체 중에서도 1명이 있다는 응답이 88.4%로 대다수이며, 2명 8.1%, 3명 이상 3.5%로 응답하고 있어 환경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체제의 인적자원 구성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개, %)

구 분	1명	2명	3명 이상	없음	계
업 체 수	76	7	3	182	268
구성비 (’04)	28.4 (26.0)	2.6 (5.2)	1.1 (0.4)	67.9 (68.4)	100.0 (100.0)

□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 중소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중요한 과제” 또는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한 업체가 46.9%,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3.5%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이 환경대응 능력은 낮으나 환경문제



❖ 조사보고서 ❖

를 중요한 경영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 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요한 과제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	다른 경영과제 보다 소홀	관심 없음	계
업체수	25	197	159	87	6	474
구성비 ('04)	5.3 (6.7)	41.6 (38.6)	33.5 (34.5)	18.4 (16.8)	1.2 (3.4)	100.0 (100.0)

□ 환경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

• 중소기업이 여러 환경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폐기물(30.6%)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기(27.2%), 소음·진동(21.1%), 수질(17.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환경오염 분야중 가장 큰 부담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도 폐기물(35.2%), 대기(2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은 폐기물과 대기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 분	수질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악취	기타	계
업체수	82	129	100	145	10	8	474
구성비 ('04)	17.3 (14.1)	27.2 (28.5)	21.1 (17.1)	30.6 (35.2)	2.1 (-)	1.7 (5.1)	100.0 (100.0)

※ 2005년도 조사에서 악취문화 신설

□ 현행 우리나라 환경규제에 대한 견해

•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함”(28.2%),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완화해야 함”(27.0%), “더욱 강화해야 함”(10.8%)의 순으로

로 응답해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환경규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구 분	더욱 강화해야 함	적정함	완화해야 함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	계
업체수	51	134	128	161	474
구성비 ('04)	10.8 (10.3)	28.2 (23.5)	27.0 (24.2)	34.0 (42.0)	100.0 (100.0)

□ 환경규제 강화시 대응책

• 향후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경우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준수에 노력한다”에 대한 응답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시설로 충분함”에 대한 응답도 3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구 분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준수에 노력함	현재의 시설로 충분함	단기적으로 벌과금을 감수해야 함	조업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낮춤	대응책 없음	계
업체수	189	169	51	37	28	474
구성비 ('04)	39.9 (40.6)	35.7 (33.9)	10.7 (9.1)	7.8 (8.7)	5.9 (7.7)	100.0 (100.0)

□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의 종류 및 부담 정도

• 납부여부 및 종류

조사응답 업체의 68.6%가 수질·대기배출부과금 및 폐기물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또한 납부하고 있는 업체중 39.6%가 “대기배출부과금”을, 38.0%가 “폐기물부담금”을, 16.5%가 “수질배출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구분	있다 (복수응답)					없다	계	
	수질배출 부과금	대기배출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기타	소계			
업체수	325	72	173	166	26	437	474	
구성비('04)	68.6(69.7)	16.5(16.3)	39.6(40.8)	38.0(37.3)	5.9(5.6)	100.0(100.0)	30.3(30.3)	100.0(100.0)

※ 금년도 조사에선 악취배출부과금 문항을 신설하였으나 응답업체 없었음.

• 부담정도

-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의 부담정도에 대해 “보통”에 대한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큰 편”이거나 “매우 큼”이 33.5%로, “작은 편”이거나 “매우 작음”이 28.0%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분	매우 큼	큰 편	보통	작은 편	매우 작음	계
업체수	25	84	125	59	32	325
구성비('04)	7.7(4.0)	25.8(19.9)	38.5(41.7)	18.2(23.0)	9.8(11.4)	100.0(100.0)

• 미활용 사유

- 현재 인증제도를 기업경영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334개 업체를 대상으로한 미활용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 32.3%의 업체가 “유지·관리비용 과다”에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잘 몰라서”(26.0%),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25.5%)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구분	잘 몰라서	인증 수수료 과다	유지·관리 비용 과다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기타	계
업체수	87	16	108	85	38	474
구성비	26.0	4.8	32.3	25.5	11.4	100.0

□ 친환경상품 및 환경마크, GR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경영 활용여부

• 친환경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인증제도에 대해 전체 57.6%(273개 업체)의 업체가 현재는 기업경영에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추진계획이라 응답하였고, 28.3%(134개 업체)의 업체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활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14.1%(67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분	활용하고 있음	현재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추진할 계획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고 향후 추진계획도 없음	계
업체수	67	273	134	474
구성비	14.1	57.6	28.3	100.0

□ 2004년도 환경분야 투자비용 및 2005년도 투자계획

• 조사대상 474개 업체 중 2004년도에 환경분야 투자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42.4%(201개 업체)로서, 응답업체의 평균 환경 관련 투자비용은 39,887천원이었으며, 2005년도에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44.7%(212개 업체)로 평균 투자계획 비용은 38,87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 ~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1억원 미 만	1억원 이상	계
'04년도 투자비용	업체수 87	81	13	20	201
구성비	43.3	40.3	6.5	9.9	100.0
'05년도 투자계획	업체수 79	89	23	21	212
구성비	37.3	42.0	10.8	9.9	100.0



✧ 조사보고서 ✧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시 애로요인

(단위 : 개, %)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곤란”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의 지원책 부족”(21.9%), “관련 정보 부족”(18.6%), “전문인력 부족”(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애로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 1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분	자금 조달 곤란	정부의 지원책 부족	관련 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애로요인 없음	계
업체수	171	104	88	58	53	474
구성비('04)	36.1 (36.6)	21.9 (19.4)	18.6 (18.6)	12.2 (14.3)	11.2 (11.1)	100.0 (100.0)

□ 환경관련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벌유무 및 위반분야

- 전체 474개 업체중 78개 업체(16.5%)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2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대기 분야에 대한 법령위반이 증가한 반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위반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분	있다						없다	계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폐기물	기타			
업체수	78	20	28	3	17	10	396	474
구성비('04)	16.5(22.4)	25.6(25.2)	35.9(30.1)	3.8(8.8)	21.8(27.4)	12.9(8.0)	30.3(77.6)	100.0(100.0)

※ 약취분야에 대한 응답업체 1개는 기타에 포함

□ 환경관련 법령 위반시 처벌내용

- 환경 관련 법령위반시 처벌내용으로는 “개선명령”이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벌금 및 징역형”(37.2%), “조업정지”(5.1%), “시설의 사용중지”(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결과 “벌금 및 징역형”(60.2%)이 가장 높은 것과 비교해보면 “개선명령”이 크게 늘어났고, “벌금 및 징역형”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분	개선명령	조업정지	시설의 사용중지	벌금 및 징역형	계
업체수	42	4	3	29	78
구성비('04)	53.8 (29.2)	5.1 (7.9)	3.9 (2.7)	37.2 (60.2)	100.0 (100.0)

※ “허가취소” 문항에 대한 응답업체 없음

□ 환경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지도·단속 횟수

- 환경과 관련하여 총 474개 업체 중 352개 업체(74.3%)가 지난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점검을 받은 업체는 평균적으로 연간 3.5회(2004년도 3.7회)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점검을 받은 352개 업체의 평균점검횟수는 2회가 101개 업체(28.7%), 3~4회가 92개 업체(26.1%), 5회 이상이 85개 업체(24.2%), 1회 74개 업체(21.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지도·단속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

(단위 : 개, %)

구분		있다				없다	계
		1회	2회	3~4회	5회 이상		
업체수	352	74	101	92	85	122	474
구성비('04)	74.3(78.7)	21.0(16.2)	28.7(25.9)	26.1(30.5)	24.2(27.4)	25.7(21.3)	100.0(100.0)

※ 약취분야에 대한 응답업체 1개는 기타에 포함

• 환경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도·단속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계기관의 중복적 지도·단속”이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적용”(30.9%), “지도·단속의 횡수와 위반에 따른 처벌방법의 비합리성”(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구분	관계기관의 중복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	시료채취 및 오염도 측정의 비객관성	지도·단속 횡수 및 위반에 따른 처벌방법의 비합리성	기타	계
업체수	140	121	28	78	25	392
구성비('04)	35.7(28.4)	30.9(31.1)	7.1(9.7)	19.9(23.1)	6.4(7.7)	100.0(100.0)

※ 약취분야에 대한 응답업체 1개는 기타에 포함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지정도

• 향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의무부담시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기후변화협약의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191개 업체(40.3%)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19.6%에 불과해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발효 등으로 인한 이슈화로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인지도가 거의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분	매우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	잘 모름	전혀 모름	계
업체수	19	74	190	175	16	474
구성비('04)	4.0(1.2)	15.6(7.7)	40.1(31.7)	36.9(47.3)	3.4(12.1)	100.0(100.0)

□ 에너지 저감활동 여부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에너지 저감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2.7%인 297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 없음”(97개 업체, 20.4%), “하고 있음”(80개 업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지도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저감활동은 소폭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자들이 실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개, %)

구분	하고 있음	현재 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임	계획 없음	계
업체수	80	297	97	474
구성비('04)	16.9(15.7)	62.7(58.4)	20.4(25.9)	100.0(100.0)



✧ 조사보고서 ✧

□ 환경관련 애로사항

- 환경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체들은 1순위로 전체 417개 업체중 170개 업체(40.8%)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2순위로는 전체

358개 업체중 95개 업체(26.5%)가 “각종 승인, 신고 등의 의무과다”로 응답하여 전년도에 이어 이 두 가지 항목이 중소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

(단위 : 개, %)

구 분		공장입지 곤란	환경관리인 채용 곤란	방지사설 설치 및 운영 자금 부담	배출허용 기준 준수 곤란	각종 승인, 신고 등의 의무 과다	행정기관의 빈번한 단속	기타	계
1순위	업체수	65	40	170	30	73	32	7	417
	구성비('04)	15.6(15.9)	9.6(10.6)	40.8(33.9)	7.2(9.5)	17.5(19.7)	7.7(10.0)	1.6(0.4)	100.0(100.0)
2순위	업체수	25	56	69	53	95	56	4	358
	구성비('04)	7.0(8.5)	15.6(15.8)	19.3(21.5)	14.8(14.4)	26.5(25.8)	15.6(13.8)	1.2(0.2)	100.0(100.0)

회 고

본 연합회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본 연합회는 법인세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 공고 제 2004-137호(2004. 12. 17)에 의거 공고되었다.

본 연합회는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연합회 회관건립기금이나 기타기금 마련에 활력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기부금은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시 손비처리 되므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